실속 재테크

파생결합증권(DLS)이 뜬다

금·원유 등 실물자산에 투자 원금보장 등 '틈새 상품' 인기

회사원 김모씨(45)는 여윳돈 3천만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다. 코스피지수가 1,500선을 넘자 펀드를 환매해 2년전 투자한 원금을 되찾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금리는 낮고 주가는 오를대로 오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은 부동산 투자도 재미가 없어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 틈새상품으로 파생결합증권(DLS)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신영證, 연 최고 24% 수익 DLS 2종 판매

기초자산 가격변동 심해 꼼꼼히 따져봐야

◇원금보장형 인기=증권사들은 최근 대안투자 상품으로 원금보장형 DLS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신영증권은 29일과 30일 최대 21~24% 수익을 추구하는 원금보장형 DLS 2종을 판매한다.

모두 금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년의 상품으로 금 현물가격이 최초 기준가 대비 30% 넘게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가격에 따라 최대 24%의 수익을 지급하고 초과 상승한 적이 있다면 3%의 수익으로 만기 상환한다.

미래에셋증권은 'DLS 제 100회' 31일까지 1년5개월 만기로 판매한다. DLS 제100호는 발틱화물운임지수(BD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기준지수가 100%(3000) 이상 125%(3750) 미만이면 기준지수 대비 상승률의 50%만큼을 수익으로 지급한다.

DLS는 증권사가 발행하고 판매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이뤄진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PB센터에서 DLS를 판매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상품을 통해서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기고 운용 대상 등을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DLS를 공동 구매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식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다.

◇주가 하락기에 가입할만=DLS의 장점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초자산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최근에는 안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원금보장형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점 역시 장점에 못지않다. 우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이 심해 방향성 예측이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기초자산들에 대한 정보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익숙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국민은행 PB센터 관계자는 "기초자산은 무엇인지,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구조는 어떤지, 원금 손실 가능성은 얼마나 있으며 어떤 경우에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지, 만기가 될 때까지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판매중인 DLS 상품

상품명	판매일	특징
신영증권 2종	29~30	원금보장형·금현물가격이 기초자산
미래에셋 DLS 제100회	31일까지	발틱화물운임지수(BDI)와 연동
유진투자증권	28~30	금값연동, 연 최대 24% 수익목표

▲DLS=주가연계증권(ELS)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만기를 가지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ELS가 개별 주식 종목이나 주가지수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과 달리 DLS의 기초자산은 원유와 곡물, 금 등 원자재는 물론 금리, 환율, 신용사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탄소배출권 등 다양하다.

보스턴백 메고 여름휴가 어때요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바캉스철을 앞두고 나들이용 가방으로 가볍고 실용적인 보스턴백, 쇼퍼백 등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국제선 유류 할증료 부활

9월부터 편도기준 단거리 10弗, 장거리 23弗

올 3월부터 6개월간 적용되지 않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9월부터는 다시 부과될 전망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75~180센트로 집계돼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150센트를 크게 넘어섰다.

6~7월 평균 MOPS는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의 3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과기준에 따르면 3단계는 편도 기준 단거리 10달러, 장거리 23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방콕과 싱가포르, 상해,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왕복 기준 2만5천원(1천250원/달러)이, LA와 뉴욕, 런던, 파리 등 유럽과 미주, 오세아니아는 5천7천5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 달 후에 반영하기 때문에 6~7월 항공유 평균 가격은 9~10월에 적용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작년 12월부터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올 3월부터 8월까지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현재 3천300원이 부과되고 있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9월부터는 4천원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광주세관 내달말까지

광주본부세관은 28일 "휴가 시즌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해외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 기간 모든 수하물에 대해 X-ray 검사를 하고 여행객들의 짐을 풀고 실시하는 '개장검사' 비율을 높여 반입금지 물품과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호화 사치품 반입에 따른 과세 처리를 엄격히 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 여행시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든 살 빼는 약, 감기약 등과 명품을 위조한 가짜 상품 등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차 보험 할증기준 50만원→최고 200만원

기준 금액 따라 보험료 소폭 오를 듯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이 최고 200만원으로 올라가고 보험료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은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70만원 초과로 상향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에는 할증 기준을 50만 원 초과에서 60만~70만 원 초과로 올리는 제1안이 유력했으나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할증 기준을 다양화하는 제3안에 대한 지지가 많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제3안은 할증기준 금액을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다양화해 운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기준 금액이 높을수록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가 비싸진다. /연합뉴스